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J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Building a Small-Size Public Library in the Area of the Reconstruction of Old Apartment Complex: A Case Study of J Apartment Complex in Seoul

김 영 석(Young-Seok Kim)*

< 목 차 >

I. 머리말	IV. J아파트 단지 현황 및 주변 지역의 공공도서관 시설 현황
I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V. 재건축추진 중인 J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건립 방안
III. 복합건물 형태로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국내외 사례	VI. 결론 및 제언

초 록

우리나라에 공공도서관이 많이 없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도서관건립에 대한 인색한 투자와 함께 효과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선진국과 같은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정책을 펴야 한다. 지역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이들 지역에 작은 규모의 마을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서울에 있는 J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위치로 옮겨가는 동사무소와 우체국을 하나의 건물로 신축하고, 이 건물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을 이들 시설들과 함께 1층에 배치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세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 공공기관 혹은 상업시설과 함께 복합건물 형태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키워드: 재건축, 재개발, 작은 도서관, 마을도서관, 공공도서관

ABSTRACT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is not good enough in Korea. The main reasons why there are not many libraries are: the lack of people's recognition of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ublic libraries, stingy investment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building public libraries, and no policy on effective building of public libraries. Now, there should be a policy on building and operating small-size public libraries that the developed country adopts. Redevelopment of local areas and reconstruction of old apartment complex are the best chance of building small-size libraries in those areas. The apartment complex in which this study took place is going to be reconstructed in the near future. A small-size library can be built with a district office and a post-office as a multi-complex building. Building a small-size library with public institutions or business buildings in the place of redevelopment of local areas and reconstruction of old apartment complex is one of the best solution of solving the lack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Keywords: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Small Library, Neighbourhood Library, Public Library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skim7@mju.ac.kr)

• 접수일: 2008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8년 5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6월 21일

I. 머리말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소개 된지 1세기¹⁾ 지났다.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별개로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있어서 집 다음으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설 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그 수가 너무 적다는 데 있다. 공공도서관의 수가 적으면 도서관이 주민들의 주거지에 고루 분포하지 않게 된다. 즉,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의 절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가까이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공공도서관 시설이 많이 있으면 도서관의 접근성이 높아져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주거지 가까이에 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되고, 시민들의 독서량과 정보 획득양도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숫자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²⁾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수를 목표로 삼아서는 공공도서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서관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한정의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까지도 선진국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발전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의 연구자는 다른 연구³⁾에서 영국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도서관 확충의 근본 방법을 파악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선진국들이 현재와 같이 많은 공공도서관을 갖게 된 것은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4,000여개의 공공도서관 중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분관)들은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도서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다.⁴⁾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예

1) 일반적으로 1901년 부산에 설립된 독서구락부(讀書俱樂部)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으로 보고 있다.

2) 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607개관이다. 이에 반해 Fuegi & Jennings(2004)에 의하면 미국(16,491관), 독일(10,932관), 이탈리아(6,003관), 스페인(5,209관), 영국(4,614관), 프랑스(3,884관), 캐나다(2,750관), 그리고 일본(2,680관)이다.

3) 김영석,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3), pp.29-48.

4) 김영석(2007)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2,689㎡이고 영국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550㎡이다.

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짓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 수준의 도서관 숫자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공공도서관 확충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일찍부터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처럼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건립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이러한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법이 널리 소개되었다면, 본 연구의 대상지가 되고 있는 J아파트 단지에도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3,930여세대의 인구 약 15,000여명이 살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의 J아파트 단지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다.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시설의 증가 속도는 느리고, 여전히 선진국과의 도서관 수의 차이는 크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 특히, 서울의 여러 곳에서 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연구자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본 인프라 부족의 원인은 오랫동안 대규모 형태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소규모 형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이 연구를 통해 소규모 형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의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으로써 이들 지역에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 제안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에는 정식 사서가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 건립은 반드시 정규직 사서의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크게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먼저, 연구 내용과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론 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결과를 얻는 것이 연구의 목표인 만큼, 현장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 아파트 단지의 현황과 공공기관들의 크기 및 위치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면담하였다. 즉, 동사무소, 파출소 그리고 우체국의 위치 변경, 신축에 따른 건축비 문제, 현 공공기관 건물 대지의 소유권 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우체국 직원을 면담하였다. 또한 재건축 과정 및 후에 이들에 공공기관들의 상황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본 연구의 연구 대상지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 J아파트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을 면담하였다.

Ⅲ. 복합건물 형태로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국내외 사례

국내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혹은 재개발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도서관이 건립된 사례가 아닌, 도서관과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복합건물 형태의 소규모 공공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영국의 사례

2006년 3월말 기준 영국에는 208개 자치단체에 3,977개⁵⁾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이것은 인구 약

5) Public Library Statistics 2006-07 Estimates and 2005-06 Actuals,
〈<http://www.cipfastats.net/leisure/publiclibrary/>〉 [cited 2008. 6. 11].

15,000명당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이다. 영국이 이처럼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된 데는 첫째, 작은 규모의 분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작은 분관을 단독 건물 형태가 아닌 복합 건물 형태로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복합건물 형태의 공공도서관을 많이 건립 하였다. 셰필드(Sheffield)시는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에 세 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 수영장, 공중목욕탕 그리고 공동세탁실을 한 지붕 하에 두었다.⁶⁾ 셰필드시는 또 1980년대 중반에 시 외곽에 대규모 쇼핑센터를 만들면서 이 쇼핑센터 내에 도서관을 두고, 도서관 바로 옆에 우체국과 행정기관 분소를 설치하였다. 이 도서관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멀리서 쇼핑을 오는 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이용된다. 또 2002년에는 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도서관과 의료서비스기관이 함께 공존하게끔 하였다.

2. 일본의 사례

일본은 2005년 4월 기준 2,867개의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44,300명당 하나에 해당 된다. 일본이 이처럼 많은 공공도서관을 가지게 된 근거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분관시스템을 운영함과 동시에 규모가 작은 분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은 단독 건물 형태가 아닌 복합 건물 형태로 건립하였다.

일본 동경의 23개 구 중의 하나인 세타가야구(世田谷區)는 1개의 중앙도서관과 14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어, 이 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인구 54,000명당 하나 있다.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14개 분관의 총 면적은 14,000㎡이다. 따라서 분관의 평균 연면적은 1,000㎡인데, 이 면적은 본 연구자가 조사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평균 크기인 2,689㎡보다 약 2.7배 작은 규모이다. 한편,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개의 분관 중 단독 건물 형태는 3개 도서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복합건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복합건물 형태로 건립된 도서관들은 지역 구민센터 혹은 지역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다.

3,977개관은 위의 통계자료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공공도서관 수(4,712개)에서 10시간 미만 개관하는 도서관(138개)과 이동도서관(597개)을 제외한 수이다. 10시간 미만 개관하는 도서관에는 정식 사서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6) 김영석, “변화하는 영국의 공공도서관,” 도서관문화, 제45권, 제4호(2004. 4), pp.50-51.

〈표 1〉 세타가야구 공공도서관 현황⁷⁾

도서관 명	건물 구조 및 위치	연면적(㎡)	자료 수	열람석	비고
중앙도서관	지상3층 지하2층 건물 중 지상1층 및 지하, 2층	4,344	431,869	76	단체 대출센터 별도 운영
우메가오카	지상2층 지하1층	1,500	89,713	108	단독 건물
세타가야	지상3층 건물 중 1, 2층	523	73,550	18	
기누타	지상2층 지하1층	2,242	144,858	76	단독 건물
오쿠사와	지상10층 지하2층 건물 중 지상3층	944	103,117	48	지역 구민센터 내 위치
다마가와다이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중 지상3층	689	92,873	18	지역 구민센터 내 위치
다이타	지상10층 지하1층 건물 중 지하1층	650	79,535	14	지역 구민센터 내 위치
가라스야마	지상4층 지하1층 건물 중 지상4층	1,079	98,227	48	지역 구민센터 내 위치
시모우마	지상3층 지하1층	1,092	82,948	54	단독건물
후카사와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중 지하1층	622	88,366	18	지역 구민센터 내 위치
사쿠라가오카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중 지하1층	640	91,852	12	지역 구민센터 내 위치
오야마다이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중 지상2, 3층과 지하1층	1,002	98,992	18	지역회관 내 위치
가미기타자와	지상2층 지하1층 건물 중 지하1층	891	86,029	30	지역 구민센터 내 위치
가스야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중 지하1층	1,060	104,420	48	지역 구민센터 내 위치
가마타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중 지하1층	1,076	103,619	47	지역 구민센터 내 위치

3. 싱가포르의 사례

복합건물 형태의 공공도서관은 싱가포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이 도심의 대규모 쇼핑센터 내에 건립되고 있다. 싱가포르 도서관 견학을 다녀온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도서관 사서는 자신이 보고 온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차드 로드에서 위치한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한 고급 백화점인 타카시마야(Takashimaya) 백화점으로 향했다. 우리들에게 쇼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놀라지 마시라. 그 백화점 안에(공공도서관인) ‘Library@Orchard’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선입견인 공공도서관도, 반드시 단독건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⁸⁾

Library@Orchard는 1999년 10월에 개관하였는데, 싱가포르 공공도서관 중 임대 건물에 설치된 6번째 공공도서관이다. 싱가포르 국가도서관위원회(the National Library Board)는 시내에 있

7) 世田谷區教育委員會事務局, 平成17년, 世田谷のとしょかん.

8)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싱가포르 도서관을 다녀와서, 3M Library News - 15호, http://www.3m.com/intl/kr/office/library/no.15/office15_02.html [인용 2008. 6. 10]

는 백화점 5층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고 이곳에 위의 도서관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2007년 11월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백화점과 도서관 공간 사용에 대한 더 이상의 임대 계약을 맺지 못해 잠정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 도서관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내에 설치되어 2010년에 재개관될 예정이다.⁹⁾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에서는 소규모의 공공도서관들이 단독 건물 형태가 아닌 복합건물 형태로 많이 건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건립은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화가 형성된 상태에서 많은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은 방식은 부족한 도서관의 수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 방식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 채택 가능한 좋은 방안이라고 하겠다.

4. 우리나라의 사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복합건물 형태의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다. 부천시는 복사골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이 센터 내에 아트홀, 극장, 갤러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원과 함께 어린이도서관을 두었다. 이러한 형태의 도서관 건립은 도서관과 다른 시설 상호간에 방문객 수 증가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건축비 및 운영비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는 아니지만 서울의 송파구에서는 거여2동 동사무소를 신축확장하면서 공공도서관¹⁰⁾을 동사무소와 한 건물 하에 두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공도서관을 5층 신축 건물의 4, 5층에 배치함으로써 도서관 건립의 의미를 반감시켰다. 이것은 도서관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도서관 배치 형태는 1층에 동사무소와 공공도서관을 함께 두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되었을 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도서관의 4, 5층 배치는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은 유아, 몸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화재와 같은 응급 상황 때 이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1층에 배치되어야 한다. 만약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혼자서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서 4, 5층에서 1층으로 대피하여야 하는데 이들의 신속한 대피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J아파트 단지에 마을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2층

9) Library@Orchard, <http://infopedia.nlb.gov.sg/articles/SIP_253_2005-01-24.html> [인용 2008. 6. 11].

10) 거마 도서정보센터, <<http://218.145.101.70/>> [인용 2008. 5. 3].

이상에 주서비스 공간을 배치하지 않고 1층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난 1월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송파구 관내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개관하였다. 이 '소나무언덕1호 도서관'은 아파트 상가 3층에 177㎡의 크기로 자리를 잡았다. 이 도서관은 기존의 마을문고를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작은도서관으로 재개관한 경우다. 따라서 이 도서관은 본 연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마을도서관 건립 계획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즉, 현재 J아파트 단지에 운영되고 있는 작은 마을문고를 아파트 재건축과정에서 마을도서관으로 재개관하는 데 소나무언덕1호 도서관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J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마을도서관은 단순히 문고를 사서가 근무하지 않는 형태의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사서가 근무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문고이지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 건립 방안 제안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작은 도서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IV. J아파트 단지 현황 및 주변 지역의 공공도서관 시설 현황

1. J아파트 단지 현황

J아파트 단지에 왜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지역의 인구·지리학적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J아파트 단지는 한 개의 행정구역상의 동(洞)을 형성할 만큼 넓은 지역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78년에 준공된 30개동 3,930가구로 구성된 중형(34평, 35평, 36평)의 15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지의 총 면적은 353,987㎡이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약 15,000명이다. 따라서 면적은 농촌지역의 면과 비교해서 매우 작지만, 인구는 보통 면의 두 배에 가깝다. 인구밀도는 약 45,197명으로 우리나라와 서울의 인구밀도 각각 491명, 14,773명 보다 매우 높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78년에 완공되어 2008년 올해로 만 30년이 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정책에 의해 재건축추진이 강화되어 언제 재건축이 완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건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재건축이 완료 될 것으로 보인다.¹¹⁾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는 행정구역상 한 개의 동을 형성하고 있고, 15,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1)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잠실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뉴스(2006. 11).

2. J아파트 단지 내 및 주변의 도서관 시설 현황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J아파트 단지는 행정구역상 하나의 동을 형성하고 있고, 거주 인구도 15,000여명에 달하는 등 이 지역에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혹은 이웃한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면 더 이상의 도서관 건립은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웃한 지역의 도서관 시설을 조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J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은 없다. 다만, 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동사무소에 작은 문고가 하나 운영 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 단지 밖에 있는, 단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송파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에 소개한 바와 같이 J아파트 주민들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자료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들은 J아파트 단지로부터 최소한 2.45km 이상 떨어져 있고, 도보 소요시간도 36분 이상이다.

J아파트 단지에서 송파구 대표도서관인 송파도서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7km인데 자동차로 갈 경우 약 15분이 소요되고, 도보로는 55분 정도가 소요 된다. 송파구에는 2006년에 개관한 또 하나의 공공도서관인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있는데, J아파트 단지로부터의 거리와 도보 소요시간은 송파도서관보다 더 멀고 길다. 한편, J아파트 단지 뒤편 한강 건너의 광진구에 광진정보도서관이 있으나, 이 도서관도 J아파트 단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로 가는 데는 약 15분정도 소요되고, 도보로는 1시간 이상이 소요 된다. 지난 1월엔 송파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¹²⁾이 하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도서관 또한 J아파트 단지로부터 도보로 38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관내에 있는 2개의 학교가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이들 도서관들도 J아파트로부터 각각 2.45km, 2.65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갈 경우 36~40분 정도 소요된다. 이들 도서관 외에 관내에 어린이도서관 하나와 여성문화회관 내에 도서관이 하나 있으나 이들 도서관들은 입관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료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료 회원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도서관은 없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걸어서 35분 이상 소요되고, 도보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들은 유료이거나 대출시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많

12)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 2008.

<<http://board.icross.co.kr/ifocus/view.icross?cateid=00070000&idx=39330&is=1211543747>>

[인용 2008. 5. 10].

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과 문화 및 정보서비스 욕구 해소를 위해서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혹은 이웃한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하나 건립되어야 한다.

〈표 2〉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송파구 소재 도서관 현황

도서관	이용료	J아파트 단지로 부터의 거리(km) ¹³⁾	J아파트 단지로 부터의 도보 소요시간(분) ¹⁴⁾
송파도서관	무료	3.7	55
거마도서정보센터	무료	5.25	78
가락중학교도서관	무료	2.45	36
토성초등학교도서관	무료	2.65	40
삼전종합사회복지관내 삼전어린이도서관	무료(대출 희망 시 연회비 2만원)	1.84	27
소나무언덕1호 도서관	무료	2.54	38
송파여성문화회관 도서관	유료	1.63	24

3. J아파트 단지 내 문고 운영 현황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J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도서관은 아니지만 마을문고가 하나 운영되고 있다. 이 마을문고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면 굳이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내에 있는 문고는 그 크기도 매우 작고, 운영 및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의 문화 및 정보서비스 욕구를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을문고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고는 동사무소 2층(〈그림 1〉의 4)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총 면적이 약 16㎡(약 4.8평)로 매우 협소하다. 문고의 내부는 네 면이 서가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에 좁고 긴 책상이 한개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 책상 겸 유일한 열람책상이다. 의자는 4개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가족 혹은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책을 대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총장서는 3,200여권이라고 하였으나 대출된 도서들이 있어서 그런지 연구자가 현장을 방문해 보았을 때 이 숫자보다 적어보였다. 대부분의 장서는 성인용 단행본으로 문학서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어린이 도서들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도서나 전문도서들은 소장하고 있지 않아 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3) 'Paran 지도'가 제공하는 '거리재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지 중앙을 중심으로 도서관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였다.

14) 'Paran 지도'가 제공하는 '거리재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지 중앙을 중심으로 도서관까지의 직선거리와 도보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실제로는 단지 내 주민들의 동 위치에 따라서 소요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문고 운영은 총 15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팀을 이루어 하루씩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문고는 일주일에 네 번 문을 열고 개관시간은 오후 2-5시까지이다. 따라서 일주일 개관 시간은 총 12시간에 불과해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도서 대여기간은 7일이며 연체료는 1권당 300원이다. 도서 대출은 유료인데 1권당 대출요금은 300원이다. 1일 이용자는 약 25-30명이고, 주당 이용자는 약 100-120명이고, 연간 이용자는 약 4,800-5,800명이다. 운영 예산은 구청에서 3개월마다 6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총 2,600,000원이다. 지원된 운영 예산은 기본적으로 문고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 인건비 지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도서구입비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문고 운영자들은 3개월에 65만원을 지원받으면 이중 50만원은 자료구입비에 쓰고 나머지 15만원은 전화요금 등 문고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한편 이 문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료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수입을 얻고 있다. 문고 측에서 밝힌 1일 이용자 수에 근거해서 대출수입을 산정해 보면 대략 월 130,000원¹⁵⁾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수입금은 전액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문고는 구청 지원비(연 200만원)¹⁶⁾와 자체 수입금(연 156만원) 등 총 3,560,000원 정도를 도서 구입비로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고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동사무소 2층에 자리 잡고 있어 위치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도서구입비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이 너무 좁고 상근 관리직원이 없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도서의 대출이 유료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15,000여명 이상의 상주 주민 및 이웃 단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V. 재건축추진 중인 J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건립 방안

1. 현재 J아파트 단지 내의 주요 건물 배치 현황

J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하 마을도서관)의 적절한 위치를 정하고,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J아파트 단지의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을 조사·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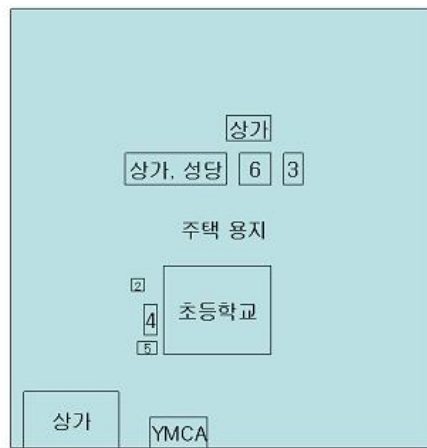
약 354,000㎡의 J아파트 단지에는 기본적으로 15층으로 이루어진 30개 동의 아파트 건물이 단지 전역에 흩어져 있다. J아파트는 30년 전에 단지가 조성되어 최근에 건립된 아파트와는 달리 동

15) 1일 약 27명 × 4일(주) × 4주 × 300원 = 129,600원.

16) 구청 지원금 중 문고 운영비 제외한 금액.

간 간격이 넓고, 단지 내에 많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이 없고 건물이 낡아 주민들이 아파트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J아파트 단지에는 30개 동의 주거용 건물 외에 <그림 1>과 같이 크게 세 개 지역에 기타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제1지역은 한강변에 인접한 단지의 북쪽지역으로 이곳엔 두 개의 종교시설(성당과 교회: 3)과 2개의 상가 그리고 관리사무소(6) 건물이 있다. 이들 지역의 건물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지의 남쪽 대로변이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 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1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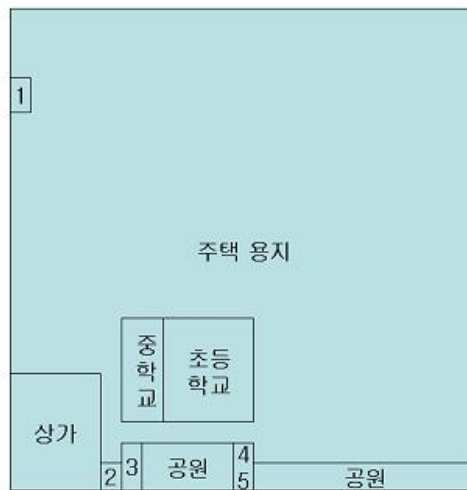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J아파트 단지의 주요 건물 배치 현황

제2지역은 단지의 남쪽에 치우친 지역으로 이곳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림 1>과 같이 초등학교 왼쪽 옆에 파출소(2), 동사무소(4) 그리고 우체국(5)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이들 파출소, 동사무소 그리고 우체국은 각각 독립된 건물 형태로 되어 있으나 한 지역에 모여 있다. 30년 전 J아파트가 조성되었을 때 만약 이들 기관들이 복합건물 형태로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었다면 건축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 기관 상호간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파출소는 24시간 경찰이 상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동사무소는 화재나 도난 등에서 별도의 안전시설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체국 또한 복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고객이 찾아 왔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지 내 마을도서관을 복합건물 형태로 건립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제3지역은 단지의 최남쪽으로 대로변과 접한 곳이다. 이곳엔 대규모 상업시설과 체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2. 마을도서관 건립 방법

재건축소식¹⁷⁾에 의하면 재건축 과정에서 J아파트 단지의 주거용 건물 외 다른 건물들의 배치 계획은 <그림 2>와 같다. 그러나 현재 J아파트 단지 내의 세 개 공공기관의 직원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재추위)의 사무국 직원과의 면담 결과 <그림 2>의 계획도와는 달리 각 공공기관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 된 것이 없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은 아직까지 재건축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추위가 각 건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시로 계획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단지 내 마을도서관 건립 방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단지 내 건물 배치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각 건물의 최종 배치 논의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제안하고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단지 내 마을도서관의 구체적인 건립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J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과정에서의 각 건물 배치 계획도

가. 마을도서관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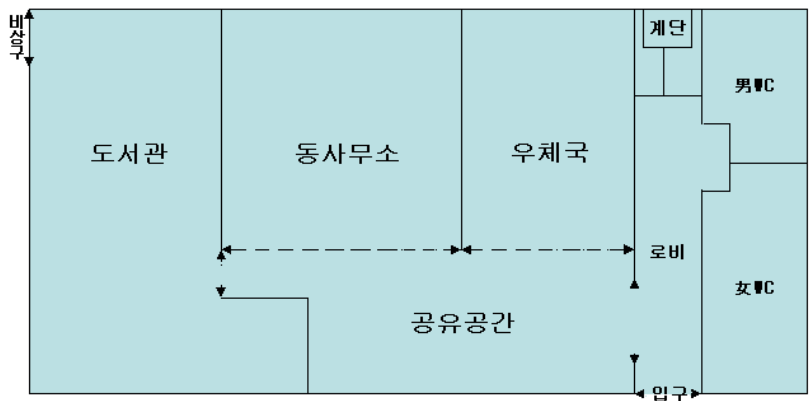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마을도서관의 위치는 재추위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배치 선상, 즉 <그림 2>의 4, 5에 해당하는 동사무소와 우체국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소규모 마을도서관은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건물의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한데, J아파트 계획도상에 공공기관들이 대로변 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도서관이 <그림 2>의 4, 5에 해당하는 대

17)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재건축소식, 제27호(2005. 12), p.2.

로변에 위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J아파트 단지의 중앙에 마을도서관이 들어서면 이 도서관은 이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J아파트 단지 밖 주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은 마을도서관을 단지 내에 건립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가급적이면 단지 밖의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게끔 단지 입구나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는 대로변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J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단지 내 모든 주민들의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단지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세 개의 공공기관이 대로변 쪽으로 배치되고, 독자적인 건물을 중앙에 별도로 지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계획도 상의 위치인 대로변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J아파트 단지과 인접한 다른 아파트 단지들에는 도서관이 없다. 따라서 J아파트의 마을도서관이 <그림 2>의 4, 5번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 인접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나. One Stop Service Center 및 마을도서관 배치

J아파트의 마을도서관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할 사항은 한 건물 내에 들어가는 동사무소, 우체국 그리고 마을도서관의 공간배치다. J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및 우체국과 함께 한 건물 내에 위치하게 되는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복합건물을 'One Stop Service Center'라고 이름 지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이 건물을 한 번 방문하여 동사무소, 우체국 그리고 공공도서관 시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One Stop Service Center의 배치도

마을도서관을 One Stop Service Center의 일환으로 구상하게 된 이유는 첫째, J아파트 단지에

서 도서관 용도의 새로운 그리고 별도의 택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J아파트 단지의 주택 용지는 아파트가 재건축 되는 과정에서 현재보다 5.3%¹⁸⁾나 감소될 예정이다. 감소 요인은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단지 내에 <그림 2>와 같이 현재의 초등학교 옆에 새롭게 중학교가 신설되고, 각종 시설들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택용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지 내에 독립건물 형태의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형태의 도서관 건립 제안은 재개발 및 재건축 당사자들인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서관 건립 방안은 전체 주택용지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One Stop Service Center 형태로의 마을도서관 건립은 도서관과 함께 공존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많은 장점을 안겨다 준다. 한 가지 장점은 각 공공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이용자 수가 더 많아진다. 왜냐하면 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이용자가 다른 시설도 함께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점은 최소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이들 기관들이 현재와 같이 독립건물 형태로 운영 될 때는 각각의 건물 내에 개별 이용자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복합 건물 형태로 운영 될 때는 <그림 3>과 같이 하나의 이용자 서비스 공간 - 공유공간 - 만 마련하여 이 공간을 함께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대시설, 예를 들면 컴퓨터, 복사기 및 화장실과 같은 시설도 함께 공유하고 관리한다면 부대시설 관리 및 유지비용을 많이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 이들 시설들과 함께 위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도서관에서 책이나 정기간행물을 읽음으로써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공공기관 배치로 인해 우려되는 한 가지 문제점은 세 개의 공공기관이 하나의 이용자 서비스 공간만 마련함으로써 이 공간이 많은 이용자들로 혼잡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세 개 공공기관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 공간에 모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경우 대부분 열람실 내에 머무르면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 이용자서비스 공간 - 공유공간 - 혼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사무소의 경우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요일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공유공간 지역의 혼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 주민들의 각종 공과금 납부 때문에 월말에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동의 이용자 서비스 공간에 우체국 이용자만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혼잡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의 넓은 이용자 서비스 공간은 일시적으로 증가한 많은 우체국 이용자를 수용해 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18)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재건축소식, 제27호(2005. 12), p.2.

다. 마을도서관 운영

J아파트 재건축 후에 동사무소 및 우체국과 함께 복합건물 형태로 건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마을도서관의 운영, 재정, 인력 그리고 장서 문제는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이 마을도서관을 송파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분관으로 운영 될 때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분관으로 운영되면 공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장서를 소장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족한 장서 문제는 중앙관의 지원을 받아 해결 한다. 분관의 적정 장서 규모는 공간의 크기를 감안하여 10,000권 내외로 한다. 이 정도 규모이면 기본 참고도서와 어린이도서 그리고 기본 성인도서를 소장·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 마을도서관은 분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직원 없이 사서만 근무하도록 한다. 따라서 행정적인 업무 예를 들면, 도서구입 및 기타 예산 지출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는 중앙관에서 처리해준다. 그리고 마을도서관의 사서는 이용자 봉사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분관 운영 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직원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사서직원의 수는 분관의 규모를 감안하여 두 명이 적절할 것 같다. 부족한 일손은 도서관의 친구와 같은 도서관 후원조직을 만들어 이들 그룹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운영은 단독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운영 보다 건축비 및 건물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 왜냐하면 건축비 및 각종 건물 유지비용을 다른 기관과 공동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복합건물 형태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송파구로 하여금 분관을 하나 더 건립 할 수 있게 하면서도 분관 유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준다. 분관의 재정 운영은 중앙관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즉,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도서구입비 및 기타 지출 업무는 중앙관에서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분관이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처리해야 할 재정 문제는 거의 없다.

이처럼 복합건물 형태의 분관 운영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J아파트에 마을도서관이 설치된다면 이 도서관은 재정, 인력 및 장서와 관련해서 큰 문제없이 운영 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에는 공공도서관이 많이 부족하다. 해방이후 지난 60년간 꾸준히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공공도서관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가 얼마나 적은지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가 이처럼 적은 이유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지도자 및 공무원들의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함께 도서관 건립에 대한 투자의 인색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선진국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정책을 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들은 큰 도서관이 아닌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왔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까지도 건립 및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형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오고 있다. 선진국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규모 공공도서관 건립 방식은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즉, 소규모 공공도서관 건립 정책을 일찍부터 펴왔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처 터득하지 못한 소규모 공공도서관 건립 방식 중의 하나는 지난 20여년간 전국에 걸쳐 많은 곳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 작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다시 찾아 왔다. 전국에 걸쳐 수많은 지역이 재개발되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지역이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재건축 될 때 이 지역에 작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면 공공도서관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주민 1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J아파트 단지에 공공도서관이 없음에 착안하여 재건축시점에 맞춰 이 단지에 작은 마을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구상해 보았다.

현재 이 단지에는 세 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재건축 시점에 공공도서관을 이들 기관들과 함께 묶어 하나의 건물에 공존하게 한다면, 도서관을 위한 별도의 택지를 마련하지 않고서도 도서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건축 계획서 상에 파출소는 동사무소 및 우체국과 떨어져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서관을 동사무소 그리고 우체국과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도서관을 동사무소 및 우체국과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J아파트 단지 토지 이용 계획서상에 표시한 공공청사 부지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배치가 가능하다. 그 방법은 우체국과 동사무소의 이용자 서비스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이들 두 기관의 점유 면적을 줄일 수 있다. 도서관은 복합건물의 1층 안쪽에 배치하였다. 그 이유는 우체국은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하고, 도서관 이용자는 장시간 건물에 머물면서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방해로 덜 받는 안쪽에 배치하였다. 한편 도서관을 1층에 배치한 이유는 유아,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배려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장서는 10,000권 내외로 한다. 부족한 장서는 지역 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해결 한다. 따라서 이 도서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 한다. 이 도서관은 지역 도서관인 만큼 지역주민들을 도서관 운영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도서관의 친구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앞의 IV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J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파트 재건축을 강력하

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재건축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재건축과정에서 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은 재건축이 공식적으로 추진되어야 만이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연구의 제안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연구가 완성되면 연구 결과물을 J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재건축 추진 중인 J아파트 단지에 작은 마을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구상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얻는 결론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얻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개발 지역 및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둘째, 이러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 할 때 도서관의 위치는 지역의 중앙이 아닌 입구나 옆동네와 경계가 되는 도로변에 건립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 지역의 안쪽에 위치할 경우 지역 밖의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도서관의 형태는 단독 건물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 혹은 상가 건물과 함께 자리하는 복합건물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에 단독 건물형태의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건물 택지를 구하기 어렵고, 또 무리한 택지 조성은 주거용지 감소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도서관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다른 기관의 서비스 이용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한 이러한 복합건물 형태의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존 기관의 부대시설 관련 운영비를 절감시켜 준다. 특히 도서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합건물 형태의 운영은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넷째, 복합건물 형태로 운영될 때 도서관의 위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층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유모차를 이용하는 유아부터 몸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1층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이 작은 마을도서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의 대표(중앙)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운영될 때 이 마을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최소의 운영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이 마을도서관의 장서는 10,000권 내외가 적절하다. 너무 많은 장서는 서가의 증가로 도서관의 열람 공간을 감소시킨다. 부족한 장서는 중앙도서관을 통해 서비스한다.

일곱째, 도서관 직원은 사서만으로 두 명 정도가 적절하다. 부족한 일손은 도서관의 친구와 같은 도서관 후원회를 조직하여 자원봉사자를 훈련시켜 이들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한다.

여덟째, 저녁 시간 혹은 주말에는 시간제 사서를 고용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 고 문 헌

- 곽철완.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149-167.
- 권홍택, 김진일. “공공도서관 분관건축의 적정규모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제6권, 제2호(1986. 6), pp.107-110.
- 거마 도서정보센터. <<http://218.145.101.70/>> [인용 2008. 5. 3].
- 김영석.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7. 3), pp.29-48.
- 김영석. “변화하는 영국의 공공도서관.” 도서관문화, 제45권, 제4호(2004. 4), pp.50-51.
- 김영석. “영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8권, 제4호(2003. 12), pp.3-38.
- 박성재, 이지연. “계층분석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공도서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3), pp.65-85.
- 世田谷區教育委員會事務局. 평성17년. 世田谷のとしょかん.
-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 2008. <<http://board.icross.co.kr/ifocus/view.icross?cateid>> [인용 2008. 5. 4].
- 송정숙. “한국 공공도서관의 문제점과 개선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3), pp.399-421.
- 송과구청. 송과 새소식(반상회보), 제382호(2005), p.1.
- 양주시립도서관. 양주시 도서관 건립 종합계획. 양주시 : 양주시립도서관, 2007.
- 이상복.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12), pp.491-516.
-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싱가포르 도서관을 다녀와서. 3M Library News - 15호
<http://www.3m.com/intl/kr/office/library/no.15/office15_02.html> [인용 2008. 6. 10].
-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재건축소식, 제30호(2006. 9).
-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재건축소식, 제28호(2006. 5).
-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재건축소식, 제27호(2005. 12).
- 잠실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뉴스. 2006. 11.
- 최흥식. 2005. “도시개발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부지 선정에 관한 연구 - 전주시를 중심으로 -.”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3), pp.145-166.
- Fuegi, D. & Jennings, M. 2004.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trends and commentary based on the Libecon data. pp.48-51.

〈<http://www.libecon.org/pdf/InternationalLibraryStatistics.pdf>〉 [cited 2008. 5. 25].
Gill, Philip. 공공도서관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Library@Orchard.

〈http://infopedia.nlb.gov.sg/articles/SIP__253__2005-01-24.html〉 [cited 2008. 6. 10].
Public Library Statistics 2006-07 Estimates and 2005-06 Actuals.

〈<http://www.cipfastats.net/leisure/publiclibrary/>〉 [cited 2008. 6. 11].